

성적인 죄의 달콤함

이 종 일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율리시스』(*Ulysses*)에는 다양한 갈등구조가 존재한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 마디로 압축해서 정(靜 stasis)과 동(動 kinesis)의 갈등이다. ‘정과 동’은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에서 조이스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주인공 스티븐 데달러스(Stephen Dedalus)가 미학이론을 개진하면서 제시한 개념이다(205-206). 그것은 움직임이 없는 성질과 움직임이 있는 성질 사이의 상호관계를 뜻한다. 그것은 어떤 일정한 속성을 꾸준히 유지하려 하면서도 동시에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한 존재에 내재해 있는 모순적 성향을 가리킨다. ‘정’의 성질이 부동, 항구, 법칙, 안정, 규칙성 및 규범 등에 관련된다면, 이에 반해 ‘동’의 충동은 유동, 변화, 자유, 불안정, 불규칙 및 탈선 등의 충동을 가리킨다. ‘정과 동’은 『율리시스』에서 여러 가지 양태로 나타나지만, 결혼생활이라는 차원에서 작용할 때 그것은 특히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다. 스티븐이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부적절한 예술이 불러일으키는 동적인 감정의 대표적인 항목으로 욕구(desire)와 혐오(loathing)를 꼽은 것을 상기할 때, 끌어당기는 힘, 즉 매력과 뿌리치는 힘, 즉 거부

반응의 양상을 다 기본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성은 정과 동의 견지에서 『율리시스』를 논하는 데 안정맞춤의 논거를 제공한다. 이의 탁월한 예는 스티븐이 도서관 앞에서 셰익스피어 이론을 설파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셰익스피어에 관한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 존 에글링톤(John Eglinton)과 베스트 씨(Mr Best)가 입을 모아 셰익스피어의 아내 앤 해서웨이(Ann Hathaway)를 가리켜 『데카메론』과 『오디세이』에 각각 나오는 정절의 화신 그리셀다(Griselda)와 페넬로페(Penelope) 버금가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박하여, 스티븐은 셰익스피어 부부의 결혼생활은 서로에게 불성실한 관계였음을 강조한다. 셰익스피어의 성생활은 정절과 부정, 순결과 간통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스티븐의 표현을 빌면, “부부간의 사랑 및 그에 따른 순결한 기쁨, 그리고 불륜의 사랑 및 그에 따른 불결한 쾌락 사이를 오락가락하였다”(U 9. 631-32. 이후 『율리시스』의 인용문에 대해서는 U를 생략하기로 함.).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부부간의 사랑”이 “순결한 기쁨”과 연결되고 “불륜의 사랑”이 “불결한 쾌락”에 연결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사랑 관계의 과잉이라 할 수 있는 간통에는 성 방식의 과잉이라 할 수 있는 음란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는 점이다. 스티븐이 볼 때, 과도와 일탈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는 “벗어나기”(exorbitance)를 필연적인 결과물로 초래하는 이러한 과잉 행위는 셰익스피어의 삶뿐만 아니라 만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이다.

조이스가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충실히 재현하려는 의도로 쓴 『율리시스』에는 “불결한” 성으로 보이는 요소들이 넘쳐난다. 거기에는 외설적인 소재에 대한 논의와 묘사뿐 아니라 사통(私通)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가령 주인공 공 리어폴드 블룸(Leopold Bloom)은 성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관심으로 성적인 문제에 대한 다양한 상념에 빠지는데, 이는 「서시」(“Circe”) 장에서 그가 벨라 코헨(Bella Cohen)과 잡다하게 벌이는 기괴한 성행위에 대한 환상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그의 아내 몰리(Molly) 또한 보는 이에 따라서는 추잡하다고도 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생각에 빠져든다:

그 남자[보일런 Boylan]가 그 어마어마하게 큰 짐승같이 벌건 물건을 달고 죽히 서너 차례나 들어오지 뭐야 혈관인지 뭐인지 하는 그것이 꼭 터지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도 내가 그것을 꺼내 내 몸에 싸게 시켜보았더니 그렇게 큰 물건치고 안에 들은 정액은 그렇게 엄청난 양이 못 되더라고. (18. 143-155)

『울리시스』의 외설은 관능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 방귀, 향문, 똥에서부터 심지어 불륨의 자위행위의 찌찌한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변학(糞便學)적인 소재를 노골적으로 제시하는 범주로까지 확산된다. 스티븐이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르면, 『울리시스』는 두드러진 “동적 예술”(kinetic art), 즉 외설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울리시스』는 성적인 면에서 동적인 원칙에 걸보기만큼 압도적으로 지배당하고 있지는 않다. 성적으로 정적인 요소와 동적인 요소가 끊임없이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이 두 요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만큼 밀접한 상호관련을 통해 역동적인 긴장과 창조적인 과정을 형성한다. 「레스트리고니언」(“Lestrygonian”) 장에는 이를 잘 예시하는 두 가지 대립적인 요소—젊은 시절 호우스(Howth) 언덕에서 물리와 육체적인 사랑을 나눈 일에 대한 그의 추억과 박물관에 세워진 나체 여신상들에 대한 그의 명상—가 주인공 불륨의 의식을 통해 병치되어 있다. 이 병치는 한편으로 정과 동 사이의 날카로운 대조를 빚어낸다. 물리의 민감한 살(flesh)과 여신상의 무감각한 돌, 육체적인 관능성과 예술적인 세련미, 현실과 이상, 유동과 부동, 그리고 한시적인 생명과 불멸성 사이의 대조가 그것이다. 그 병치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몸의 관능성이라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요인에 바탕을 둔다. 불륨의 입장에서 볼 때 정과 동의 특질은 앞서 말한 대조와는 판판으로 관련된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물리는 그의 안정적인 가정을 대변하는 데 반해 나체의 여신은 사이렌적인 유혹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륨은 “저기 [여신상] 엔 없네. 하긴 관찰한 적이 없지. 오늘 봐야지.... 어디 한 번 저 여신이”(8. 930-32)라며 여신 조각상에 소화계통의 구멍, 즉 항문이 있는지를 궁금해 하는데 그에게 이러한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것은 이렇듯 긴밀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성적인 차원의 정과 동에 대한 무의식적이거나 날카로운 그의 통찰이다.

이런 뜻에서 『울리시스』에 곧잘 등장하는 ‘죄의 달콤함’(sweets of sin)이라는 역설적인 모티브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불륨이 물리에게 주려고 산 외설적인 책의 제목인 이 말은 궁극적으로 성적인 차원에서 정과 동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양상을 가리킴과 동시에 입증하기도 한다. 성적 쾌락에 대한 지나친 추구가 “빛에 대한 죄”를 낳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뿌리치기 힘든 성적 쾌락에 탐닉하다 보면 사회적 혹은 도덕적 맥락에서 정립되어 있는 법과 규범을 위반하

기가 쉬운 까닭이다. 그러나 인간이 언제까지나 똑같은 전철만 밟으면서 살아간다면 삶의 진정한 재생, 또는 ‘후(後)창조’(postcreation)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러한 답보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할 것이다. 진정한 창조란 흔히 기존의 규범으로부터 수시로 이탈하거나 그것과 역동적인 긴장을 이루는 데에서 나오는 법이다. 인간적인 견지에서 볼 때, “빛에 대한 죄”는 규범의 억압적인 올라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의적으로 행해지는 규범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전화위복(felix culpa)’이라 할 만하다. 죄로부터 창조가 생기는 까닭이다. 이런 의미에서 “죄의 달콤함”은 단순히 성적 쾌락—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의 뿌리치기 힘든 유혹을 의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억압적인 정통성을 건설적으로 위반함으로써 맺어지는 맛있는 열매까지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본 “죄의 달콤함”이라는 개념은 보기에 따라서 성적으로 비정상인 것처럼 비칠 만한 불륨의 태도에 의미 있는 조명을 던져준다. 그는 성에 매우 집착한 나머지 흔히 변태로 치부될 만한 행태들을 다양하게 보여준다. 그 예로는 끊임없는—비록 부정적인 것일망정—바람기, 순순히 오쟁이지기, 자위, 관음증, 자학증, 복장 도착(倒錯), 양성성, 호분증(好糞症) 등을 들 수 있다. ‘서시’ 장의 환각적인 장면에서 벅 멀리건(Buck Mulligan)은 불륨의 성적인 과도함과 빛나감을 이렇게 표현한다:

...불륨 박사는 양성적으로 비정상입니다. 그 분은 유스터스 박사의 사설 남성 정신병원에서 최근에 탈출하였습니다. 침대 자물쇠에서 태어나 고삐 풀린 욕정의 결과인 간질 증세를 보입니다.... 고질적인 노출증의 증상이 현저합니다. 양수잠이 증세도 잠복해 있습니다. 자위행위로 인하여 머리가 일찍 벗겨졌고 그 결과 변태적으로 이상주의적이며 개심한 난봉꾼인 데다 금속 치아를 가지고 있지요. (U 15. 1774-82 필자강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불륨의 성적인 이탈과 과도함의 항목들이 정신질환 및 양수잠이에 대한 기록과 더불어 열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의 성적인 파격성이 사회가 흔히 정상적 또는 이상적이라고 간주하는 것으로부터 그가 대체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멀리건이 불륨에게 붙인 “변태적으로 이상주의적”이라는 모순어법적인 딱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불륨의 모범적인 변태성을 가리키는 것일까? 일차적으로, “변태적으로 이상주의

적”인 증상이 자위행위에서 비롯됐다는 멀리건의 진단은 불륨이 해변에서 거티(Gerty)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변태성을 뜻하는 외에 그것이 실제로 아무런 생산적인 결과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의 성적 태도가 보이는 이상주의적 인—즉, 순전히 정신적인—양상을 뜻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불륨은 과연 정말로 변태성욕자인가? “변태”라는 말은 자연적인 본능에 따라 성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사람에게 부당하게 붙여지는 낙인인 경우가 많다. 남에게 해롭거나 불건전한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자연적인 성행위 또는 성적인 태도가 종종 편협하게 이상화된 규범이 지배하는 사회적 환경에서는 비난이나 지탄을 받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불륨의 소위 변태성은 그가 성의 신비로운 실체에 누구보다도 가까이 접근해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변태적으로 이상주의적”이라는 구절은 그가 성적으로 이상주의적일 뿐 아니라 이상적이라는 것을 함축한다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불륨의 성에서는 “변태적”이고 “이상(주의)적”인 특성이 화해적으로 공존하는 셈이다. 『율리시스』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예시해주는 불륨의 두드러진 성적 특징 두 가지가 있으니 바로 “자위”와 “호분증”(coprophilia)이다.

불륨이 해변에서 행한 자위행위는 과연 변태일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이 점을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행위를 할 때 보인 그의 은밀한 자의식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사회가 편협하게 규정한 도덕규범에 의해 죄책감이 그에게 강요된 탓이라고 볼 수도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불륨은 자위가 정상적인 성행위의 익숙한 한 항목으로 간주되는 근대적인 성 개념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영웅이기도 하다(Brown 61). 역설적으로 말하면, 불륨이 정말로 이상적인 것은 그의 변태성이 피상적이기 때문인데, 바로 이 점이 성적으로 정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개념에 대한 전통적 규범이 편협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불륨의 “자위”가 “변태적으로 이상주의적”인 성을 초래했다는 멀리건 박사의 진단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불륨의 자위라는 소위 “변태성”이 이상적인 것은 단순히 그것이 자위를 정상적인 성 행위의 한 가지로 분류하는 진보적인 성적 근대성을 유도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조이스는 “자위에 따른 무관심”을 불륨의 약초인 몰리(moly)의 여러 이파리중 하나로 꼽았다(SL 272). 이 무관심은 겉보기에는 오래 억눌려온 성욕을 충족시킨 데서 오는 정서적인 냉정함을 가리킨다. 일부 비평가들이 그의 자위

를 “정육 충족에 대한 환상적 대체물” 및 “그의 생활환경의 산물” 중 하나라거나 (Peake 330) 혹은 “그나마 다른 배출구보다는 덜 파괴적인 배출구”(Beja 262)라는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다. 게다가 자위는 그 불임성—혹은 피임성—의 효과로 인해 가톨릭적인 견지에서 보면 빛에 대한 용서받지 못할 죄일지 모르지만, 간통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가짜 부성(父性)을 초래하는 것을 막는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

그러나 블룸이 하는 자위의 변태성이 갖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는 “자위에 따른 무관심”이라는 표현 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동적인 흥분의 결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적인 냉정을 찾았고 그 결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타적인 관심을 되찾는다. 블룸의 자위는 이런 면에서 타인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활력까지도 생성시키는 정동 합일의 경지를 일궈낸다. 이런 합일은 젊은 처녀에 의해 강조되는 특이함 및 열망과 중년 남자에 의해 강조되는 친숙함과 인정이 병치되어 있는 「노시카」(“Nausicaa”) 장의 이원적 구조를 통해 형식적으로 구체화되어 있다(Ellmann 132). 즉 거티가 블룸이 외국인 신사라는 환상에 끝까지 집착하는 데 반해 블룸은 나중에 거티가 절름발이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리처드 엘먼(Richard Ellmann)에 따르면 블룸은 이를 통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다:

블룸은 갑자기 그 장면을 이해하게 되고 그의 동정으로 그와 조이스는 그들의 중심으로 돌아온다....

블룸으로 말하자면, 자위는 그로 하여금 다른 존재들에 대한 평소의 심려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준다.... 문학사상 처음으로 자위가 영웅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이상과 현실을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단순하거나 상스러울망정 하찮은 것은 아니다. (Ellmann 132)

정적인 “무관심”은 자아로의 회귀를 끌어낸다는 점에서 블룸이 가장 이상적인 의미에서 동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타인—특히 거티, 스티븐 및 궁극적으로 몰리—에 대한 이상적인 선의를 되찾는 원천으로 작용한다. 바꿔 말해서, 블룸의 이상적인 이타주의는 그로 하여금 “무척 젊어진 느낌”(13. 1273)을 갖게 한 자위의 동적인 “변태성”에서 생겨난 셈이다. 블룸이 “변태적으로 이상주의적”인 것은 바로 이렇게 이상과 현실을 결합시키는 방식에 있는 것이다.

정과 동의 이러한 역동적인 상호관계는 「노시카」 장의 끝 부분에 몇 가지 방식으로 암시되어 있다. “의도적으로 반만 한—또는 반은 의도적으로 한—”(Done half by design)(13. 1268-69)이란 주제는 직접적으로는 블룸이 해변에서 막대기로 메시지를 쓰다 만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의 자위를 비롯하여 『율리시스』에 나와 있는 것들에 두루 적용된다. 자위는 블룸이 의도적으로, 즉 어떤 생산도 가져오지 않기 위해, “반만 한” 성 행위이다. 그러나 자위는 “반은 의도적으로” 한, 즉 반은 우연히, 따라서 반은 필연적으로, 한 행위이기도 하다. 이 점은 그의 의식 속에서 우연과 필연이라는 주제를 파고드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몇 문단에서 확인된다. 가령 블룸은 거티와의 만남에 대해 “우연이야. 우리 다시는 만나지 못하겠지. 하지만 좋았어. 그대 잘 가요. 고마워요. 나에게 젊은 기분을 안겨주었으니.”(13. 1271-73)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런 일이 똑같은 상태로 나타나는 법은 없지.”(13. 1277)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반쯤 잠든 상태에서 그의 무의식 속에서 “met him pike hoses”—반복과 변화를 아우르는 ‘윤회’(metempsychosis)에 대한 물리식 개념—를 주제로 삼는 대목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그리고 “빠꼭” 소리로 들리지만 사실은 아홉시를 알리는 종소리 또한 간통이라는 동적인 양상의 주제와 아홉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완벽과 영원이라는(Gifford 404) 정적인 양상의 주제를 결합시킨다. 동과 정 의 이러한 양립 가능한 양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티의 눈에 비친 블룸의 아이로니컬한 모습, 즉 “바위에 앉아 있는 저 외국 신사(that foreign gentleman that was sitting at the rocks)”(13. 1302, 필자강조)이다.

블룸의 성 취향이 독특하게 빛나간 또 다른 특징인 호분증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리를 펼 수 있다. 향문이나 둔부에 대한 그의 유별난 관심은 다양한 양태로 나타난다. 자신의 배변, 동물들의 똥에 대한 관찰, 이웃집 처녀의 “탱탱한 궁둥이”(4. 148), 여신 조각상의 향문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사이렌스」(“Sirens”) 장의 맨 끝에서 시의적절하게 내뿜는 방귀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조이스 자신이 향문 중심의 성행위(anal sex)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성향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는 가령 아내 노라(Nora)에게 보낸 1909년 12월 9일자 편지에 이렇게 썼다: “여보, 나는 당신의 젖가슴보다 엉덩이가 더 좋소. 엉덩이는 아주 더러운 일을 하기 때문이지. 내가...당신의 이쁘게 맨살로 드러난 처녀 같은 엉덩이에서 뽕뽕 새어나오는 더러운 처녀 같은 방귀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SL 186) 어쨌든

블룸의 호분 취미는 물리의 엉덩이에 입맞추는 그의 습관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난다. “간통한 엉덩이의 찬미자”(15. 2839)인 그는 그날의 성 활동의 종지부를 그것으로 찍는다:

그는 풍만하고 말랑말랑하고 노랗고 냄새 달콤한 멜론 같은 아내 엉덩이에, 풍만하고 멜론 같은 각각의 반구체 위에, 말랑말랑하고 노란 고랑 속에, 살며시 한참동안 자극적이고 멜론처럼 달콤한 입맞춤으로 키스하였다. (17. 2241-43)

문장의 호음조(好音調)로 보아 블룸이 물리의 엉덩이에 하는 키스에 만족스럽게 몰두한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편협한 도덕주의자가 느낄 만한 가책 같은 낚새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당시 사회에서 편협한 도덕적 정통성이 지배적이었던 것은 거의 완벽한 자연의 화신이라 할 만한 물리조차도 이를 “부자연스럽다”고, 즉 변태적이라고 여기는 데서도 짐작이 가는 일이다. 물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 “나를 포옹해주는 일도 없지만 그나마 잠든 채 간혹 그럴 때에도 내 몸의 엉뚱한 쪽에다 그러는 거야 누구한테 그러는지도 모르고 하는 짓일 테지 여자 엉덩이에 키스하는 남자가 있으면 난 그 남자 찍어 내 모자를 던져줄 거야 그런 남자는 그 뒤에 어떤 부자연스러운 물건에라도 키스하려 들 테니 말이야”(18. 1400-03). 그러나 블룸은 양성성과 양수잡이와 혼혈 (그는 유대 민족과 비유대 민족의 피가 반씩 섞여 있다)을 가진 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상반된 것들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성적인 중심을 이중으로 가진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오히려 단순히 “항문 섹스의 색정적 성향과 성기 섹스의 색정적 성향을 구분 짓는 경계선”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기보다는 호분증이야말로 “블룸의 색정적 성향에 있어서 진정한 중심”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Hart 134-35). 그리고 『율리시스』의 맥락에서는 이것이 자연스럽고 논리적이다. 만일 스티븐이 주장하듯이 부성(paternity)이 논리적 허구라면 성기 섹스 또한 무의미하다. 아들 루디(Rudy)를 잃은 것이 블룸의 성적 냉담을 초래한 원인이라면, 항문 섹스는 자위의 경우처럼 “생식 없는 성교”(copulation without population)(14. 1422)로서 심리적으로 블룸에게는 성의 자연스러운 중심이 된다.

그러나 블룸의 호분증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그것의 자연스러움이다. 단순히 항문 섹스가 성기 섹스처럼 자연스러운 본능에서 생긴다는 뜻만은 아니다. 따지고 보면, 항문이란 그 소화기능에 비추어 볼 때 생명의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적인 신체 기관이다. 하트 교수가 적절히 지적하듯, 블룸이 “이사카의 비옥한 땅”에 해당하는 물리의 엉덩이에 키스하는 것은 “그의 본성과 인류 전체의 본성에 대한 인정”의 제스처라 할 만하다(Hart 136). 호분 증은 일부 도덕주의자들에 의해서 변태적인 것으로 치부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영구불변의 자연법칙에 대한 그의 경외심에서 비롯된다. 이런 점에서 숫자 “8”을 연상시키는 두 반구체의 결합인 엉덩이는 방황과 회귀, 즉 일탈의 움직임과 궤도의 움직임을 동시에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은 『율리시스』 미학의 중요한 양상을 드러내는 셈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노골적이고 변태적인 관능을 언뜻 보기에 타당한 이유 없이 과도하게 표출하는 것을 부정적 의미에서 동의의 한 요소로서 외설로 치부하여 배격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경직된 관념주의자 에글링튼의 진술 “미학과 화장품은 규방에나 어울립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분명한 남자를 위한 분명한 진실 말입니다. 탠더래기(Tanderagee)는 사실과 사실을 얻는 수단을 원합니다”(15. 2258)에 잘 나타나 있다. 이성(理性) 중심적인 에글링튼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진실과 사실은 성을 상스럽다거나 음란하다고 해서 배격하는 죽은 철학, 또는 폭압적인 정통성을 부추길 뿐이다. 그러나 블룸이 『노시카』 장에서 반추하듯 향수는 사람들을 활기차게 만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랑을 향하여 결속시키는 기능을 한다. 블룸은 이를 두고 “그것[향수]은 온몸에 퍼져 스며든다. 생명의 원천”(13. 1039-40)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볼 때 또한 조이스가 이를 두고 “영원한 특성은 상상력과 성본능이고, 형식적인 생활은 이 두 가지를 다 억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갈등에서 현대생활 특유의 현상이 생기는 것이지요”(Power 74)라고 말한 것도 유념할 만하다.

예술의 한 가지 기능은 상스럽다거나 변태적으로 보이기 쉬운 성의 진실한 양상을 제시함으로써 억압적인 독단의 허구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조이스의 예술은 한 평론가의 말을 빌면 “성의 위반에 바탕한 예술”(Brown 153)이다. 성의 규범이라는 억압적인 빛에 의도적인 죄를 지음으로써 『율리시스』는 인간본성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성의 진정한 양상을 구명하는 데 기여한다. 그렇다면 블룸에게 구현된 『율리시스』의 성은 “변태적으로 이상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블룸의 아버지 비랙(Virag)이 블룸에게 『성과학 혹은 사랑 감정의 기초』(*Fundamentals of Sexology or the Love Passion*)이라는 책을 읽어보도록 권한 것은(15. 2423-24) 의미

심장하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사랑의 열정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질 수 있는 항구적이며 기본적인 사랑의 법칙에 궁극적으로 수렴되기도 하면서 의존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서, 성이란 “자연화된 자연”(natured nature), 즉 육체적 욕구라는 구체적인 자연 현상을 통해 표현되는 보편적인 인간 본능이라는 자연법칙이라고 규정할 때 동과 정의 요소를 함께 지닌, 생명과 관련한 복합물인 것이다. 기적 소리를 성적으로 왕성한 이미지와 결부시키면서 “달콤하고 오래된 사랑 노래”(love's old sweet song)의 주제를 떠올릴 때, 몰리는 말하자면 무의식적으로 성(“사랑 노래”)의 동적이면서(“달콤하고”) 정적인(“오래된”) 양상을 통찰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대)

인용문헌

- Beja, Morris, "The Joyce of Sex." *The Seventh of Joyce*. Ed. Bernard Benstock. Bloomington and Brighton: Indiana UP, 1982.
- Brown, Richard. *James Joyce and Sexuality*. Cambridge: Cambridge UP, 1985.
- Ellmann, Richard. *Ulysses on the Liffey*. London: Faber and Faber, 1972.
- Gifford, Don. *Ulysses Annotated*.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 of California P, 1988.
- Hart, Clive. "The Sexual Perversions of Leopold Bloom." *Ulysses: Cinquante Ans Après*. Ed. Louis, 1997. 129-42.
- Bonnero. Paris: Library Marcel Didier, 1974.
- Joyce, Jame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Text, Criticism, and Notes*. Ed. Chester G. Anderson. New York: Penguin, 1968.
- _____. *Selected Letters of James Joyce*. Ed. Richard Ellmann. London: Faber and Faber, 1975.
- _____. *Ulysses*. London: The Bodley Head, 1986.
- Peake, C. H.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Stanford: Stanford UP, 1977.
- Power, Arthur. *Conversations with James Joyce*. Ed. Clive Hart. London: Millington, 1974.

Abstract

Sweets of Sexual Sin

Jongil Yi

James Joyce's *Ulysses* abounds with foul sexuality; it contains numerous stories about fornication as well as broad discussions and descriptions of obscene subjects. These elements pertain to what Stephen Dedalus in *A Portrait* calls 'kinetic' feelings such as loathing and desire. According to him, beauty created by the proper artist arouses neither a kinetic emotion nor a purely physical sensation but an ideal emotion, an esthetic 'stasis'. Stephen, while lecturing on Shakespeare's life and work in *Ulysses*, also contrasts "conjugal love and its chaste delights" with "scortatory love and its foul pleasures." In connection with love relationship, then, one might also attribute chastity or legitimacy to stasis, and adultery or illegitimacy to kinesis.

Leopold Bloom, protagonist of *Ulysses*, may be sexually accusable of 'the sin against the light'; he not only flirts with many other women than his wife but also indulges in apparently perverse acts of sex. But transgression of established laws and canons in the social or moral context can be turned into *felix culpa*. For genuine creativity often comes from occasional deviations from, and dynamic tension with, the established norm. In this regard, 'sweets of sin' might refer not only to the irresistibly seducing power of sexual pleasure, licit or illicit, but also to the sweet fruit of constructive transgression of suppressive orthodoxy.

The alleged sexual perversity of Bloom such as masturbation and coprophilia, when considered in terms of 'sweets of sin', proves to assume a more affirmative and constructive character. The static indifference due to the kinetic masturbation helped him feel young and regain his altruistic concern for others. In that posterior hole, with its alimentary function, is an essential natural organ, Bloom's anal sex, in itself natural instinct, refers to his reverence for the everlasting law of nature. In this sense, he might be indeed "perversely idealistic".

■ Key words : stasis, kinesis, sweets of sin, perversity, masturbation, coprophilia
(정, 동, 죄의 달콤함, 변태, 자위, 호분증)